사전투표 첫날… 제주 총선 후보 모두 '한표'

여야 중앙 정치권 승기잡기 차원 사전투표 독려
국민의힘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전 연령층서 투표율 상승 기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일제히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등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지층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등 총선 승기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배우자와 자녀 등과 함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도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고 지지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아침 인사를 마친 뒤 오전 9시쯤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봉개동복지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오전 7시쯤 제주시농협 본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를 실시한 뒤 이날부터 6일까지 총력 유세에 나선다. 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지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총선과 함께 진행되는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는 투표 실시 시간에 맞춰 오전 6시쯤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소속 임기숙 후보와 강민숙 후보는 사전투표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고,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사전투표에 나서지 않고 본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아 한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인사들도 사전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7시 40분쯤 배우자와 정맹철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등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외 출장 등의 일정으로 사전투표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등 승기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면서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층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투표율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높은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양상이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 연령층 투표율 상승 양상이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면 저희에게 유리한 국면일 수 있다"면서 사전투표를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제주도의회 1층 사전투표소에 기표대가 설치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공직자 악성민원 보호 조례 발의 '주목'

강충룡 도의원 대표 발의… "피해 예방·치료 지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2개월 사이 도 넘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4명의 젊은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악질 민원'의 경우 특정 공직자에게 앙심을 품은 민원인이 여러 사이트를 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넣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과거 특정 학부모가 자녀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100여건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에서 이에 대응하느라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강충룡 의원은 공직자가 존중받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을 경우 보호와 지원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시설과 기기 설치, 교육·연수 및 홍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우주산업·도심항공교통 육성 행보 가속

도-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을 위해 민간우주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한다.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4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친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미래모빌리티 생태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민간 우주산업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제주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분야 정책 수립과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국제협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제주도는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관련 산업 진입을 위한 정책연구 수립 및 이행, 도-협회-국내외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과 산업협력 활성화, 도내 우주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을 맡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도와 기업·기관 간 상담, 국제협력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발표회·기관·기업 교류 등을 지원한다. 협회는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 회원사 약 130여개로 구성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상근부회장은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주도가 가장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올해 제주 전지훈련 6만7000명 유치"

도, 특별전담조직 본격 가동… 유치마케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지훈련 6만7000명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4월부터 전지훈련 유치 특별전담조직(T/F)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별전담조직을 확대해 축구·배드민턴·수영·유도·육상·야구 등 종목별 체육지도자 6명을 포함해 도와 교육청, 체육회, 관광협회 등과 협력해 전지훈련 유치마케팅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올해 유치 목표는 동절기(1~2월) 전지훈련팀(1410명)을 포함해 전년 대비(6만3000명) 3% 증가한 6만 7000명이다.

도는 같은 종목 선수단끼리 연습경기를 주선하는 스토브리그를 만드는 등 세심한 전략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연계해 전지훈련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기능을 보강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전국대회 운영을 위한 야구장 내야 인조잔디 교체, 강창학 경기장 기능 보강,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전지훈련시설 88개소가 있다. 백금탁기자

2024 제주인명록 발간

한라일보가 제작한 「2024 제주인명록」이 발간됐습니다. 「2019 제주인명록」 발간 이후 5년만 입니다. 도내·외 인사 3000여명이 수록된 이번 인명록에는 2023년 11월말 기준 도내 주요기관·단체 인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제주인의 기개를 드높인 인사들의 현직 및 주요 경력 등이 정리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규 격 | 4X6배판 정 가 | 15만원
입금계좌 | 농협 981-17-006824

한라일보사 구입문의 : 064)750-2531